

KREI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플러스



정대희 | 부연구위원
dhchung@krei.re.kr

곽혜선 | 전문연구원
hyesunk@krei.re.kr

2026년 미국 국별무역장벽 보고서 (NTE), 한국 농업부문 통상 이슈와 대응 방향

KEY MESSAGE

- ✓ 2026년 NTE 보고서는 TRQ 운영, SPS 승인 절차, GE 표시제 등 제도 운영 및 정책 설계로 문제 제기를 확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필요

SUMMARY

- 기존 이슈를 유지하는 가운데, TRQ 운영, SPS 규제, GE 표시 등에서 문제 제기가 제도 운영 및 정책 수준으로 구체화됨.
- 특히 쌀·대두 TRQ 운영 방식, 축산물 MRL/PLS의 Codex 수용 중단, GE 표시 확대 등은 국내 정책 변화가 직접적으로 통상 현안으로 반영됨.
- 미국은 협상 레버리지를 활용해 시장접근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어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함.

01 2026년 미국 국별무역장벽 보고서(NTE)¹⁾의 특징



기존 쟁점에 더하여, 국내 정책 운영과 설계 등으로 문제 제기의 범위 확대 및 구체화

I TRQ 등 기존 제도의 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문제 제기 확대

- 2026년 보고서는 기존의 저율관세할당(Tariff-Rate Quota: TRQ) 제도의 존재나 구조를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제도의 실제 운용 과정에서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시장기반성 여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구체화됨.
- 특히 쌀과 대두를 중심으로 입찰 방식, 가격 설정, 물량 배분 및 유통 구조 등 구체적인 운영 메커니즘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음.

I SPS 승인 지연 중심에서 규제의 설계 및 정책 방향까지 논의 범위 확대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분야에서는 생명공학 승인 지연, 검역 절차 문제,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기준 등 기존에 제기되었던 이슈들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2026년 보고서는 국내 유전자 편집(Genome Editing: GE) 규제, GE 표시제 확대를 포함하는 등 문제 제기 범위를 국내 정책 및 규제 설계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음.

I 최근 제도 변화 및 입법 동향이 즉각적으로 통상 쟁점에 반영

- 한국의 최근 정책 및 제도 변화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음. 유전자 편집 관련 법 개정 논의, GE 표시제 확대, 검역 절차 개선 협의, TRQ 운영 방식 변화 등 국내 정책 변화가 통상 이슈로 즉각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임.

I 일부 이슈의 경우 문제 제기를 넘어 협의 및 이행 대상으로 제시

- 일부 이슈의 경우 기존의 문제 제기 수준을 벗어나, 양자 협의 및 제도 개선 과정과 연결된 이슈로 제시하고 있음. 생명공학 승인 절차, 원예작물 검역 등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 SPS 위원회 등 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언급되는 등 특정 제도의 개선 방향이나 후속 조치가 함께 제시되고 있음.
- 이는 NTE 보고서가 향후 협상 의제 상정 및 정책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I 기존 핵심 이슈의 지속성

- 쇠고기 30개월 율령 제한, 가공 쇠고기 수입 금지, 원예작물 검역 승인 지연, MRL/PLS 기준 등은 이전 보고서와 유사하게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1)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in Foreign Trade Barriers(이하 NTE 보고서)는 미국 수출, 해외직접투자(FDI), 전자상거래에 대한 주요 외국의 장벽을 강조하고 미국 정부가 제거하여야 하는 무역장벽을 식별하기 위한 연례 보고서임.

02 농업부문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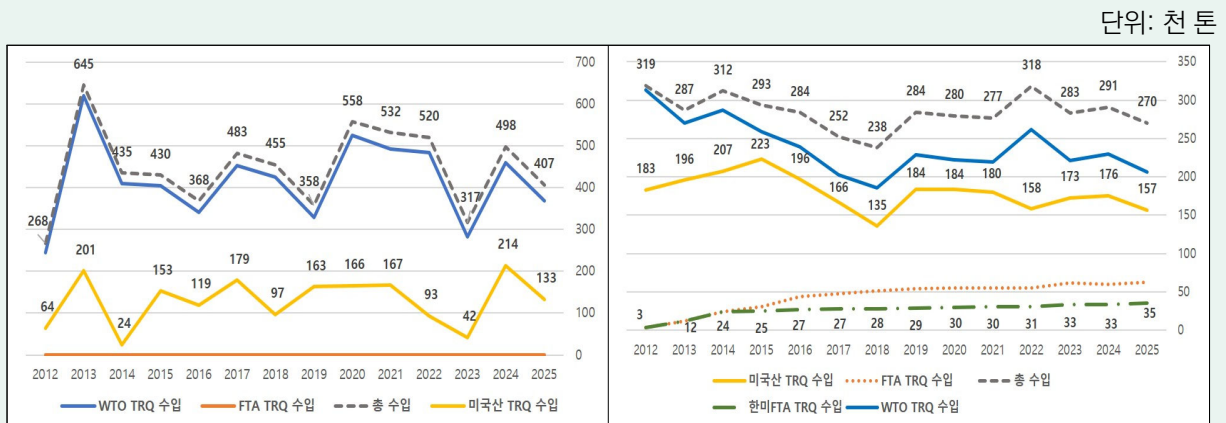


TRQ 운영, 생명공학규제, 검역 및 잔류농약기준 등 주요 농업 통상 이슈를 다층적으로 제시

I TRQ는 제도 운영 방식과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 구체화

- 과거 NTE 보고서에서는 TRQ 존재와 구조를 설명하는 수준이었으나, 2026년 보고서에서는 운영 방식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시장기반성을 직접 문제 제기하는 등 구체화됨.
- (쌀 TRQ) 한국의 쌀 TRQ를 별도 항목으로 상세하게 다루고 있음. 특히 가격상한(price ceiling)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 밥쌀용 쌀 경매의 반복적 중단, 그리고 수확기(11월) 전후 미국산 밥쌀용 쌀 주간 경매의 반복적 중단 등을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운용 방식으로 인해 미국산 쌀이 안정적으로 밥쌀용 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주류 제조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 즉, TRQ가 형식상으로는 시장개방 장치이지만, 운영 방식에 따라 시장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따라서 향후 입찰 운영 방식의 투명성, 경매의 정례성(예측 가능성), 가격상한 선정 원칙(시장기반성 및 일관성) 공개 등과 같은 절차적 요소를 더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대두 TRQ) 최근 한국이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하여 식용 Non-GMO 대두에 대해 WTO 최소 의무수입량(185,787톤)을 유지하고 기존에 적용되던 약 4만 톤의 추가 연간 쿼터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였다고 언급함. 이와 관련하여 NTE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미국산 대두 수출 감소(약 3만 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미국은 이를 한국의 국내 농업 지원정책이자 시장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 판단하여, 통상 현안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1〉 한국의 쌀(좌)과 대두(우)의 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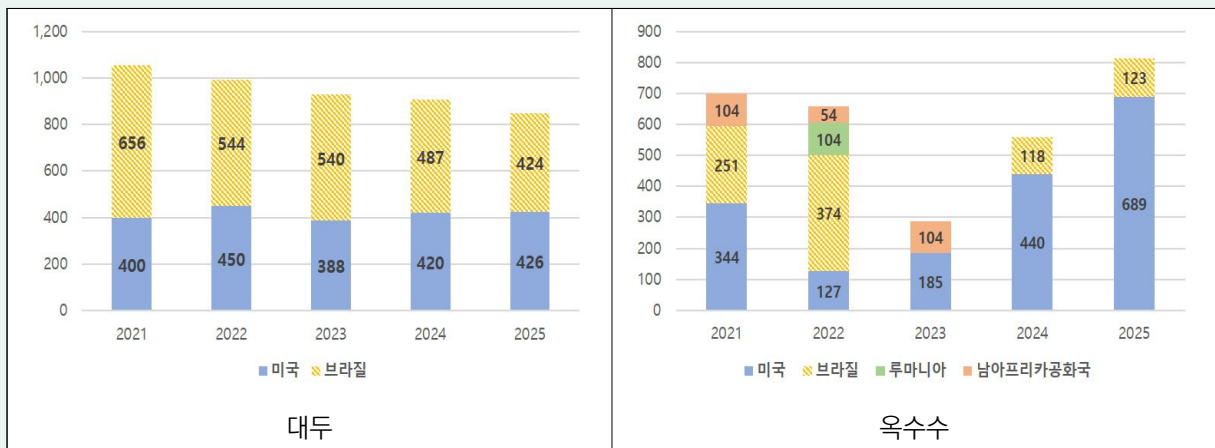
주: 대두의 수입은 식용대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미국산 TRQ 수입은 WTO TRQ 물량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6. 2. 25.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I SPS 분야는 기존 쟁점이 유지되는 가운데, 문제 제기의 범위가 규제체계와 정책 설계로 확대

- (농업생명공학 승인 절차) 한국의 생명공학 승인 절차가 다기관 심사 구조로 인해 중복 검토되고, 이에 따른 장기적인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 언급되고 있음. 2025년 팩트시트²⁾에서 한국은 규제 승인 절차 효율화와 지연 해소를 공약한 바 있음. 이에 2026년 NTE 보고서에서는 해당 이슈가 행정적 비효율 문제 제기를 넘어, 승인 절차 간소화와 적체 해소가 한-미 양국 간의 협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음. 즉, 문제 제기 사안은 동일하나, 양자 협의와 연계하는 등 정책 개선 요구 강도가 과거에 비해 강화되었음.
- (GE 표시제 확대) 2026년 NTE 보고서에선 GE 원료 유래 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를 신규 쟁점으로 언급하고 있음. 2025년 12월 국회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최종 제품에서 원료의 DNA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원료의 GMO 유/무에 대한 표시 의무를 확대하였음. 한국에서는 소비자 알권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었지만, 미국은 이를 수입 식품에 대한 추가 규제로 인식하여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신규 무역장벽으로 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음.³⁾ 한국은 식품용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를 주로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어<그림 2>, 미국은 해당 조치가 자국 농산물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한국 내 정책 변화가 즉각적 통상 현안으로 연결된 사례로 볼 수 있음.

<그림 2> 식품용 유전자변형 곡물 수입 실적

단위: 천 톤



주: 한국은 식품용 대두를 파라과이에서도 수입하고 있으나, 수입량이 연간 100톤 이하로 그래프에는 표시하지 않음.

자료: 한국생명공학연구원(각 연도), 유전자변형생물체 주요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대통령실(2025. 11. 14.),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 전문”.

3) 코덱스 GMO 표시 가이드라인(CAC/GL 76-2011)은 검출 가능 여부를 표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 다만, Codex 규격은 그 자체로 개별 국가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의무사항은 아님.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2011), CAC/GL 76-2011: Guidelines for the Labelling of Foods Obtained through Genetic Modification.

- (MRL 및 PLS) 한국의 MRL 제도는 기본적으로 PLS에 기반하여 운영되며, 국내 기준(MRL) 또는 수입허용기준(import tolerance)이 없는 경우 기본값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구조임. 미국은 한국의 MRL/PLS 제도와 관련하여 <표 1>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2026년 보고서에서는 동물용의약품 MRL 제도 중심으로 우려를 제기함. 한국이 2024년 1월부터 유사 종·동일 조직의 MRL 인정 정책과 국제식품규격(Codex) MRL 자동 수용을 중단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수산물에 대해 국내 MRL 또는 수입허용기준만을 기준으로 하는 PLS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일부 성장촉진제의 경우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시장접근이 제약되고 있다고 언급함. 미국은 이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낮은 조치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과학기반 기준 설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즉, 2026년 보고서에서는 비수용 대상 품목과 PLS 적용 원칙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한국의 제도 운영의 엄격성을 더욱 부각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음.

<표 1> NTE 보고서상 MRL/PLS의 연도별 변화 내용

연도	NTE 보고서상 변화 내용
2010~21	· 농약 PLS 전환기 모니터링 · 임시 MRL 제도 소멸 예고(2021년 말) 및 이후 일률 기준 적용(0.01ppm) · 수의약품 PLS 단계적 도입 예고
2022	· 농약 PLS 완전 시행(2022. 1.) · 수의약품 1단계 시행: 항균제 잔류 기본값 0.03ppm에서 0.01ppm으로 하향
2023~24	· 수의약품 2단계 시행(2024. 1.):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우유·수산물에 국내 MRL 또는 수입허용기준만 허용 · Codex MRL 자동 수용 중단
2025~26	· Codex MRL 자동 수용 완전 중단 · 성장촉진제(베타작용제, 스테로이드계 소염제) 불검출 기준 적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과학기반의 기준 설정 지속 요구

자료: USTR(각 연도),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원예작물 검역) 원예작물 검역은 NTE 보고서에서 장기간 반복되어 온 대표적인 SPS 이슈 중 하나임. 미국은 블루베리, 체리, 사과, 배, 감자, 딸기 등에 대해 검역 승인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2026년 보고서에는 기존의 문제 제기에 더하여, 검역 절차를 전담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U.S. Desk 설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NTE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미국이 검역 문제를 개별 품목 승인 지연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한국의 검역 승인 시스템 전반의 운영 효율성과 처리 속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향후에는 특정 품목의 승인 요구를 넘어, 검역 절차의 간소화, 처리 기간의 단축, 승인 기준의 투명성 제고 등 문제 제기가 구체화 될 가능성이 존재함. 검역 제도는 국내 병해충 유입 방지 및 식물위생 확보를 위한 중요 정책 수단이므로 시장접근 요구와 국내 검역 목적 간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표 2〉 NTE 보고서에서 언급된 미국의 검역 해제 요청 품목

연도	NTE 보고서상 변화 내용
2010	· 블루베리(오리건주 외), 체리, 사과, 배, 핵과류(자두, 복숭아, 넥타린 등)
2022	· 텍사스 자몽, 캘리포니아 핵과류 추가
2025~26	· 감자(11개 주 추가), 딸기, 미니 당근, 냉동 산딸기, 블랙베리 추가 · U.S. Desk 설치(2025. 12.) 언급

자료: USTR(각 연도),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쇠고기 수입 제한) 쇠고기 이슈는 2008년 한·미 양국 간 합의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슈임. 미국은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 육포·소시지 등 가공 쇠고기 수입 금지, 쇠고기를 원료로 하는 식품 수입 제한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다만, 2025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쌀·쇠고기 등 민감품목의 추가 시장개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음.⁴⁾

1 농식품 분야에서도 노동권 이슈가 실질적인 시장접근 제한 조치로 연결

- (강제노동 및 천일염 수입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 2025년 4월 미국 관세국 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 천일염에 대해 WRO를 발동한 바 있음. 2026년 NTE 보고서에서는 강제노동에 의한 노동비용 절감이 특정 상품에 불공정한 가격 우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이는 농식품 분야에서 노동권 이슈가 실질적인 시장접근 제한 조치로 연결된 사례임.

〈표 3〉 농업 분야 주요 이슈별의 연도별 추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쇠고기 월령 제한	기재	기재	기재	기재	기재	강화	기재
원예농산물 SPS·IRA	기재	기재	기재	기재	기재	기재	기재
농약 MRL/PLS	강화	강화	기재	기재	기재	기재	기재
축산물 MRL/PLS	-	기재	기재	기재	강화	강화	강화
GMO 승인 지연	기재	기재	기재	기재	기재	강화	강화
GMO 표시 확대	-	-	모니터링	기재	기재	신규	강화
대두 TRQ	-	-	-	-	-	-	신규
쌀 TRQ	-	-	-	-	-	-	신규
강제노동	-	-	-	-	-	-	신규

자료: USTR(각 연도),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4) 대통령실(2025. 11. 14.),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 전문”.

03 농업부문 통상 대응 방향



통상 압력에 대응한 제도 운영 및 대응 논리 정비

I NTE 보고서의 전략적 성격이 현황 기록에서 협상 수단으로 변화

- 최근 NTE 보고서의 기능이 국가별 무역장벽 목록을 작성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의 실질적 압박 수단으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임.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동 시 NTE 보고서를 직접 제시한 바 있으며, 미국의 수석 농업협상대표 줄리 캘러핸(Julie Callahan)은 “트럼프 관세가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시장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협상 레버리지를 제공했다”고 언급하였음.⁵⁾ 이는 NTE 보고서 내 지적 사항이 향후 양자 협상 의제로 제시될 수 있음을 시사함.

I WTO 규범 기반 방어 논리와 양자 협상 대비 전략 마련 필요

- 미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국제 질서나 협정보다 신규 양자 협상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USTR의 제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는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2026. 3.) 이후 “미국은 자국의 통상 경로를 독자적으로 개척할 것(chart its own course)”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⁶⁾ 미국은 관세(Section 122, 232, 338 등)를 강력한 협상의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하여 상대국의 농업분야 비관세조치를 제거하고 시장접근성을 확보하는 양자 협상에 집중하고 있음.
- 한국은 WTO 규범에 기반한 방어 논리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 압박이 실질적인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나 비관세조치 철폐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통상 리스크 대응 패키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I 쌀 등 민감품목의 TRQ 운영 투명성 강화

- 미국 하원의원 17명은 USTR에 쌀 무역 불공정 관행에 대한 Section 301 조사 착수를 공식 요청한 바 있음.⁷⁾ 해당 서한에 한국이 조사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함된 것은 아니고, 미국 내 쌀 수입 급증 등 주로 미국으로 쌀을 수출하는 국가들을 조사의 타깃으로 하고 있음. 다만, NTE 보고서에 한국의 쌀 TRQ 운영 이슈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만큼 미국의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5) Washington Trade Daily(2026. 4. 22.), “Official: US Not Abandoning WTO”; Washington Trade Daily(2026. 4. 22.), Trump Urges Firms Not to Take Refunds”.

6) Washington Trade Daily(2026. 4. 9.), “Greer: WTO Isn't Serious”; Washington Trade Daily(2026. 4. 9.), “New Tools to Prevent Forced Labor”.

7) Washington Trade Daily(2026. 4. 21.), “Members Urge Section 301 for Rice”.

- 쌀 TRQ 운영 기준과 가격 산정 방식은 WTO 및 한·미 간 합의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입찰 절차·가격 산정 방식·방출 기준 등에 대한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I 비관세조치(SPS/MRL 등)의 과학 기반 방어 논리 재정비 필요

- 미국은 한국의 PLS 제도와 Codex 기준 수용 중단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무역장벽이라고 NTE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특히 축산물 분야에서 국내 MRL만을 적용하는 조치에 대해 시장접근성 제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한국은 관련 기준이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과학적 위험 평가에 근거하고 있음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미 양자 채널(U.S. Desk, 한·미 FTA SPS 위원회 등)을 통해 주요 MRL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함.

주요 통상 이슈의 사전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I 노동권 및 공급망 규제(WRO)의 상시적 점검 체계 마련

- 천일염 WRO 사례는 농식품 분야에서도 노동권 이슈가 실질적인 시장접근 제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미국 노동부는 Labor Shield(145개국 이상 노동 위반 정보 제공 앱), Import Watch(고위험 상품 리스트), Sourcing Strong(공급망 노동 실사 지원 도구) 등의 자율 점검 도구를 배포하여 공급망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음.⁸⁾
- 농어업 분야의 취약한 노동 환경이 통상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생산 현장의 노동 규범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I 한·미 팩트시트 이행 관리 및 국내 입법·정책의 통상 합치성 사전 검토

- 2025년 팩트시트에서 공약된 GMO 승인 효율화, U.S. Desk 운영 등의 이행 현황은 차기 NTE 보고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GE 표시제 확대 관련 입법 사례에서와 같이 국내 정책 변화가 즉각적으로 NTE 보고서에 반영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통상부문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주요 입법·정책 변경 시 WTO 협정 및 한·미 FTA 협정과의 관계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8) Washington Trade Daily(2026. 4. 9.), "New Tools to Prevent Forced Labor".

I 미국 농산물 수출 촉진 프로그램(AFTPP) 확대에 따른 국내 시장 모니터링 강화

- 미국은 NTE 보고서를 통해 교역대상국의 시장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USDA/FAS는 2027년 회계연도부터 미국 농산물 수출 촉진 프로그램(America First Trade Promotion Program: AFTPP)에 2억 8,500만 달러(약 3,8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하여, 미국산 농산물 수출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함.⁹⁾
- 이를 통해 한국 시장 내에서 미국의 주요 수출품인 육류, 유제품, 곡물 등에 대한 마케팅 및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국내 농업의 품질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 전략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9) Washington Trade Daily(2026. 4. 17.), "Funds for Agriculture Export Promotion".

부록 한국의 對미국 농산물 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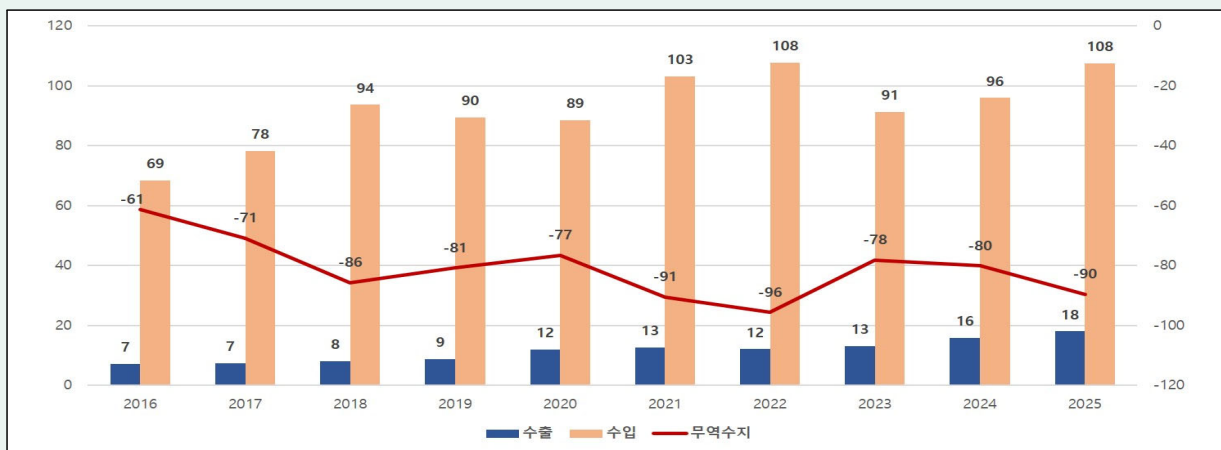


I 한국의 미국 대상 농식품 수입액은 수출액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

- 한국의 미국 대상 농식품 수입·수출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거나, 수입액이 보다 크게 증가하여, 한국의 농식품 무역수지가 악화됨. 2025년 한국의 미국 대상 농식품 수출액은 18억 달러, 수입액은 108억 달러, 무역수지는 9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부도 1〉 對미국 농산물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KATI(<https://www.kati.net/statistics/dashBoard.do>), 검색일: 2026. 4. 5.을 가공하여 저자 작성.

I 한국의 對미국 농산물 주요 수입 품목은 NTE 보고서에 언급되는 쇠고기, 대두 등으로 수입액 증가 추세

- 쇠고기는 한국의 대미 농산물 수입 중 수입액이 가장 큰 품목으로, 2016~2025년 평균 미국산 수입액은 19억 달러임. 2025년 한국의 전체 쇠고기 수입에서 미국산 비율은 54.6%로, 한·미 농산물 교역의 주요 품목에 해당함. 또한 NTE 보고서에 언급된 대두와 쌀 역시 2025년 기준 미국산 비율이 각각 56.9%와 41.3%로, 미국이 수출액 감소를 우려할 만한 對한국 주요 수출 품목으로 평가됨.

I 한국의 對미국 농산물 주요 수출 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 라면, 음료류 등으로 수출액 증가 추세

- 對미국 수출액이 가장 큰 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으로 2016~2025년 평균 1억 달러이며, 라면과 기타음료 수출액도 동 기간 평균 7천만~1억 달러를 기록함. 동 기간 췌련의 수출액은 감소하였으나, 곡류조제품과 김치 등 K-푸드 대표 품목의 수출액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함.

〈부표 1〉 한국의 對미국 주요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명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평균	변화율
쇠고기	1,035 (45.3)	1,256 (51.0)	1,636 (56.2)	1,826 (58.4)	1,815 (58.1)	2,172 (57.1)	2,624 (58.2)	2,211 (57.5)	2,243 (56.8)	2,214 (54.6)	1,903	8.8
혼합조제 식료품	652 (50.7)	681 (47.4)	779 (48.5)	992 (52.4)	1,090 (51.9)	1,221 (50.4)	1,170 (45.1)	1,094 (45.4)	1,015 (44.1)	863 (39.1)	956	3.2
옥수수	833 (43.6)	853 (47.4)	1,415 (65.9)	582 (24.6)	641 (26.8)	842 (26.0)	587 (13.7)	295 (8.3)	644 (22.1)	1,869 (66.2)	856	9.4
돼지고기	393 (28.9)	455 (27.7)	602 (32.3)	572 (33.3)	492 (33.3)	519 (28.3)	577 (26.6)	599 (29.6)	717 (32.8)	657 (30.5)	558	5.9
밀	291 (28.5)	330 (34.0)	369 (36.3)	338 (33.8)	381 (38.8)	559 (41.1)	559 (31.0)	472 (28.0)	524 (36.9)	678 (51.1)	450	9.8
대두	290 (47.7)	281 (46.4)	316 (53.2)	453 (79.6)	305 (49.4)	319 (42.2)	436 (45.6)	463 (50.0)	384 (52.9)	357 (56.9)	360	2.3
양조박	185 (96.3)	174 (97.4)	245 (97.1)	251 (98.3)	251 (97.0)	313 (97.0)	392 (97.1)	370 (94.0)	371 (97.2)	309 (96.7)	286	5.9
사료용 근채류	231 (81.0)	311 (79.1)	264 (78.3)	278 (81.5)	246 (77.8)	258 (77.4)	328 (74.0)	273 (75.0)	276 (73.2)	301 (73.8)	277	3.0
치즈	169 (39.3)	209 (39.0)	223 (41.7)	253 (45.5)	260 (41.2)	290 (42.3)	344 (43.4)	294 (34.0)	247 (38.0)	355 (42.4)	264	8.6
오렌지	226 (89.6)	242 (88.2)	251 (84.1)	204 (82.7)	185 (81.9)	194 (81.6)	158 (77.3)	151 (66.4)	180 (65.6)	158 (66.8)	195	-3.9
쌀	86 (32.5)	106 (35.7)	80 (26.7)	143 (52.0)	138 (36.7)	152 (37.6)	123 (27.1)	74 (28.5)	210 (51.2)	114 (41.3)	123	3.1

주: 주요 품목은 평균 수입액이 큰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한국의 전체 농산물 수입 대비 미국산 수입 비율은 괄호 안에 표시함.
 자료: KATI(<https://www.kati.net/statistics/dashBoard.do>), 검색일: 2026. 4. 5.을 가공하여 저자 작성.

〈부표 2〉 한국의 對미국 주요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명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평균	변화율
혼합조제 식료품	71 (8.7)	71 (8.1)	70 (8.0)	78 (9.5)	94 (10.5)	128 (10.5)	141 (12.1)	111 (10.8)	118 (10.6)	140 (11.9)	102	7.8
라면	36 (12.3)	41 (10.8)	50 (12.2)	54 (11.5)	82 (13.6)	81 (12.0)	76 (10.0)	127 (13.3)	216 (17.3)	255 (16.7)	102	24.4
기타음료	63 (29.4)	61 (27.2)	67 (24.4)	69 (25.7)	73 (27.3)	71 (22.4)	74 (21.6)	71 (17.9)	79 (17.4)	75 (17.4)	70	1.9
결련	104 (10.6)	95 (8.4)	60 (7.6)	65 (9.1)	159 (19.5)	123 (18.1)	0 (0.0)	0 (0.0)	0 (0.0)	0.2 (0.0)	61	-50.1
곡류조제품	15 (32.7)	14 (30.2)	17 (28.0)	22 (32.1)	37 (39.6)	44 (32.7)	60 (40.7)	82 (46.8)	136 (57.9)	103 (57.2)	53	24.3
기타 베이커리 제품	18 (17.8)	20 (22.6)	23 (24.2)	24 (24.1)	43 (29.7)	50 (28.9)	47 (29.5)	68 (34.6)	73 (33.9)	73 (31.3)	44	17.1
기타 소스제품	19 (21.8)	20 (19.3)	24 (22.3)	28 (22.7)	39 (23.6)	45 (22.3)	42 (21.1)	35 (17.4)	43 (19.4)	48 (19.9)	34	11.0
배	30 (45.0)	30 (45.9)	36 (44.4)	34 (41.1)	31 (42.5)	31 (43.0)	36 (48.4)	38 (50.3)	34 (58.1)	36 (61.0)	33	2.1
기타 조제식료품	12 (36.6)	15 (37.8)	17 (32.5)	18 (27.9)	26 (30.2)	30 (28.7)	34 (32.9)	41 (34.8)	46 (35.8)	55 (38.1)	29	18.1
김치	6 (7.9)	7 (8.8)	9 (9.2)	15 (14.1)	23 (16.0)	28 (17.7)	29 (20.7)	40 (25.7)	48 (29.3)	44 (26.6)	25	24.2

주: 주요 품목은 평균 수출액이 큰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한국의 전체 농산물 수출 대비 對미국 수출 비율은 괄호 안에 표시함.
 자료: KATI(<https://www.kati.net/statistics/dashBoard.do>), 검색일: 2026. 4. 5.을 가공하여 저자 작성.

감 수 김상현 연구위원 061-820-2280 sanghyun@krei.re.kr
내용문의 정대희 부연구위원 061-820-2277 dhchung@krei.re.kr

※ 「KREI 이슈+」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이슈+

제53호

2026년 미국 국별무역장벽 보고서(NTE),
한국 농업부문 통상 이슈와 대응 방향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6. 6.
발 행 인 한두봉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세일포커스(주)
I S S N 2983-3418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